

기능성 코팅 O.E.M 전문기업 (주)유원인더스트리

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주)유원인더스트리는 지난 24년간 축적된 외주가공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합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코팅 외주가공 분야의 선두 기업이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2020년 12월 사업장 창고 내 보관중인 필름류의 장기재고를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인 “노스탁”을 론칭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론칭 후 2년차인 현재 필름 생산 기업 및 유통 대리점 등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320여 개의 회원(기업, 개인) 가입을 달성하며 해당 플랫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코팅 외주 가공 분야 및 장기재고 처리를 통해 비용 절감 및 자원 순환에 앞장서고 있는 유원인더스트리를 만나 보았다. - 편집자 주 -

맞춤형 제품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

(주)유원인더스트리는 1999년 설립 이래 현재

까지 24년간의 축적된 다양한 코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주 임가공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다

양한 코팅 설비(다이렉트 그라비아, 마이크로 그라비아, 콤마, 슬롯다이)를 보유 하고 있으며, 해당 설비를 이용한 아크릴, 우레탄, 실리콘, 핫멜트, PU 점착 및 UV 하드코팅, MATT 코팅 등의 외주가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잉크업체와의 기술협약을 통한 다양한 색상의 컬러코팅 및 다이렉트 그라비아 1도기를 이용한 로고, 패턴 인쇄, 대전방지 코팅, 필름 및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드라이 라



▲ (주)유원인더스트리 김연득 대표이사



▲ (주)유원인더스트리 본사 전경

미네이팅의 가공도 가능하다.
그리고, 팬시, 제과, 의류 및 액세서리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레인보우 필름(팬시 필름)을 미국, 대만으로부터 수입하여 필름 유통 및 가공제품도 판매하고 있다.



▲ 마이크로 그라비어를 이용하여 코팅 중인 생산제품

김연득 대표는 “필름 유통사업을 시작으로 회사를 설립 운영하던 중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타 업체에 외주 가공(코팅, 합지 등) 의뢰 및 납품하였으나, 외주가공의 특성 상 불편함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외주 가공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필름 외주가공 전문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한 설비 투자를 통한 다양한 제품의 외주가공을 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팅 설비는 총 8대(준 클린룸 시설 : 다이렉트 그라비어 4개 라인, 클린룸 시설 : 마이크로, 콤마, 슬

롯다이 코팅이 가능한 4개 라인)이며, 슬리터(필름 재단) 장비도 4대 보유하고 있다. 외주가공 시 고객사 필름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

김연득 대표는 “우리 회사에서 1차 가

공한 제품을 2차, 3차, 4차 추가 가공을 하는데 기본이 부실하면 완제품의 품질 수준 및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며, 고객의 최종제품의 가치 향상을 목표로 가공 노하우 및 양질의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유원인더스트리의 설비



▲ 합성지(유포지) 백색 프라이머코팅 제품

장기재고 필름 거래 플랫폼 ‘노스탁 론칭’

임가공 생산을 하다보면 대량의 필름을 구매했다가 제 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또, 사소한 하자 등의 이유로 장기간 창고에 방치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 또는 폐기 비용, 공간 낭비 등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여 보겠다 유원인더스트리는 지난 2020년 12월 기업 내 필름류 장기재고 처리를 도와주는 B2B 플랫폼 ‘노스탁(No Stock)’을 론칭했다. 유원인더스트리 역시 창고에 매년 3~5억원 정도의 필름이 장기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노스탁은 이후 현재까지 필름 생산 업체, 대리점 등 320개 업체가 회원가입을 해 활발한 거래를 이어가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노스탁의 이러한 성장세는 화두가 되고 있는 ESG 경영에 도움을 주는 온라인 플랫폼 역할도 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최근 ESG경영이 기업 경영의 필수 요건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업

계는 폐기물의 감소와 리사이클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PET 필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C, 코오롱인더스트리, 화승케미칼 등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각종 비용 상승 및 국제 경쟁 심화, 내수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재고 활용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스탁은 다양한 산업용 필름과 연포장 재고 필름 등을 싸게 사고 팔 수 있는 착한 플랫폼으로 재고 보관과 폐기 비용 부담이 있는 플라스틱 필름 장기 재고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입비나 연회비가 없이 회원가입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 시 블라인드 서비스를 통해 기업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연득 대표이사는 “노스탁을 장기 필름류 재고 거래에서 나아가 기계나 장비 등 포장 관련

제품이라면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실경영으로 내일을 가약

세계적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인 불황으로 2023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원인더스트리도 올해는 과감한 투자보다는 직원들과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원가 절감, 수출 향상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근무 인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인재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계획이다. 김연득 대표이사는 “회사만 건재하다면 분명히 상황은 다시 나아지고 기회는 또 다시 올 것”이라며, “그때까지 잘 버티려면 일할 인력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해주어 그들이 회사에 꾸준히 다닐만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사 이문을 모아 향후에는 자녀 학자금이나 주택 금융 및 결혼 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 있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며 대한민국 1등 OEM 기업이 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노스탁(No Stock) 홈페이지 화면